

봉축사설

불국토 장엄 서원 다지는 계기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열린 날,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다. 부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진리의 광명이 빛나는 땅에 살게 되었다. 법신불이아 오고 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 본래 진리가 충만한 세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진리에 눈 어두운 중생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참다운 생명으로 사는 길을 실천하고 가르쳐 주신 부처님. 그 은혜를 어디에 비기랴! 그 오심을 봉축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며, 또 가르침에 따른 삶 살기를 다시금 서원하는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인 것이다.

우선은 우리들이 참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우리를 위해 경축해야 한다. 그 기쁨이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부처님 앞에 우리의 기쁜 몸짓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날이어야 한다. 부처님 은혜를 함께 받은 이들, 부모 앞에 형제들이 모여 화기에애한 모습을 보이듯, 함께 모여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축제의 마당을 열자.

그 속에는 부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삶의 부끄러움까지도 담겨 있다. 부처님 앞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불자들의 삶이 어찌 오늘의 모습에 머물렀는가. 또 불교계가 어찌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모습 속에 갇혀 있을 수 있겠는가. 부처님 오신 날에는 그 상주하심을 잊었던 것을 참회하고, 우리 눈 앞에, 또 마음 속에 다시금 부처님을 모시는 날이어야 한다. 부끄러움에 대한 참회. 항상 부처님을 모시겠다는 커다란 서원으로 전환되어 단단히 서는 날이어야 한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모든 불자들이 이 서원에 함께 하는 날이 되도록 하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 하나를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으로 삼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우리 불교계의 모습이 부처님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교의 참된 모습을 세우는 것을 나의 화두로 삼는 불자들이 되기를 서원하자.

이(禮)로 본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이미 불국토로 완성되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신행으로써 그 세계를 장엄하는 것은 그 세계를 사(事)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다. 그러하기에 올바른 신행은 거둬 불국토를 완성시키는 일

이요, 거둬 부처님을 오시게 하는 일이다. 부처님의 뜻에 따르는 삶 하나 하나로 이 세상에 부처님을 거둬 거둬 모시는 일인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열매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하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환희에, 부처님의 크신 공덕을 찬탄하는 불자들이 이 땅을 메울 때 바로 이 세계의 불국토가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 우리의 불교계는 견어내야 할 미망이 너무나 많고, 우리 불자들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채 입으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뇌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부처님 오신 날은 이러한 미망을 털고 참되게 부처님을 거둬 오시게 하는 서원을 다지는 날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의 큰 은혜를 찬탄하며, 불법을 접한 희유한 인연에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하여 해마다 해마다 그 찬탄이 증폭되어 온 누리가 부처님 오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날로 이어지게 해야 하리라.

우리의 신행이 증생심의 무명으로 가려지는 날도 있고, 불교계가 긴 역사의 질곡을 털기에 부침이 계속되는 날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이 실현하여 보여주시는 참생명의 이상이 있고, 그 참생명이 이루어져 사는 밝고 아름다운 세계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다시금 바로 설 수 있고,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면서 새롭게 바른 길을 찾아들게 된다. 그러한 이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다는 말 정도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나날일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 함께 이룩해 나가야 할 밝은 세계의 이상을 주시어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부처님! 그 세계로 나아가는 수많은 말 것들까지 마련해 주시지 않았는가. 근기에 맞는 말 것들을 선택하여 하루하루 향상일로(向上路)에 있는 것으로 그 크신 은혜를 알아 나가도록 하자. 이러한 우리들의 서원의 연화대 위에 부처님이 거둬 오시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4월 28일 열린 민족화해기원대법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통일을 발원하며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통일정토 세우자” 발원

김대통령 · 교계지도자 등 1천여명

롯데호텔서 '민족화해기원' 대법회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4월 26일 서울 롯데호텔 특설법회장에서 봉행한 '민족의 화해 · 협력과 조국 통일 기원대법회' 참석자들은 "후세에 물려줄 통일된 조국에서 민족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불국정토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과 각 종단 대표, 김대중 대통령 내외, 김중권 민주당 대표, 김태호 한나라당부총장,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신도 대표 등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육법공양, 정대스님과 김 대통령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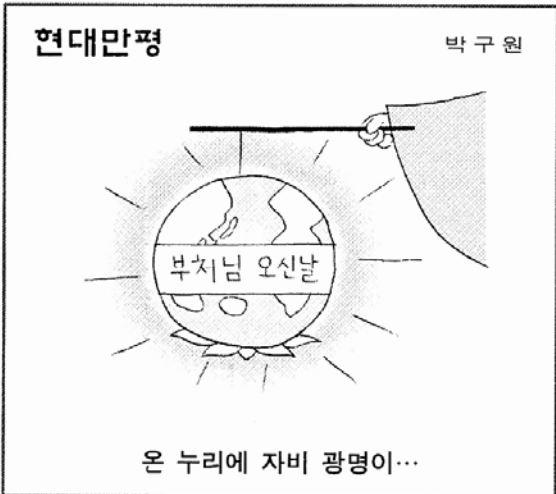
외의 관불의식으로 시작됐다. 정대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 조국통일은 절대절명의 시대적 화두"라고 강조하고 "우리 불자들은 통일을 위한 민족적 소명을 다할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오늘의 법회는 남북의 화해 · 협력과 평화통일의 희망을 다지는 귀중한 자리"라며 "불자들의 높은 애국심과 화합정신은 21세기 일류국가 도약과 통일을 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스님은 기원문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조국의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 남북 화해 · 협력과 조국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원했다.

이어 법회에 참석한 각 종단 대표와 신도 등 1천여 불자들은 진각 종 성초 통일원장이 낭독한 '불자의 다짐'을 통해 "오늘의 법회를 통해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의 문을 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정성운기자



교황청 · 기독교교회협 봉축메시지

천주교 주교회의가 부처님 오신날 봉축메시지를 발표(20일)한 데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로마 교황청에서도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KNCC 김동원 총무는 4월 24일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앞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김 총무는 메시지에서 "불교는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서 헤쳐나왔

고 빛나는 문화와 수행의 전통이 있다"면서 "새천년에 처음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은 과거 1천500년 전통에서 한민족에게 한을 넘어 희망을 주어진 것 같이 더욱 밝은 등불로 세상을 환히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또 "지역감정과 어려운 경제현실의 극복은 물론 평화통일과 인간성이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모든 종교

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프란시스코 아린제 추기경은 "해마다 찾아오는 이 축제가 전세계 불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선사하기를 기도한다"며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전 인류에게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교황청의 봉축메시지를 4월 27일 종단협의회에 전했다. 정성운기자

한국禪불교문화 '원더풀'

전등사 국제캠프 7개국 15명 참가 등만들고 발우공양 · 예불 체험

"연등의 꽃잎이 아름답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한국의 전통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직대 상운) 주최로 강화도 전등사에서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붓다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한 영국인 샤리 레월린(23세, 디자이너)은 미국 영국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등 7개국에서 온 15명의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봉축연등을 만들며 부처님 오심의 기쁨을 함께 했다.

이번 붓다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한 7개국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강화 전등사와 연등선원에서 조계종 국제포교사와 산

중스님들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발우공양 및 새벽예불 등 불교의식체험과 연등 만들기 및 메달기 봉사, 지역봉축행사준비, 서울 연등축제 행사자원 등 봉사활동을 펼친다.

특히 참가자들은 4월 25일과 26일 전등사에서 학봉스님과 한국불교와 관련한 자유토론, 연등선원 외국인스님들과 '선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서강스님(전등사 재무원)은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한국 전통사찰 체험을 통해 불교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강화=김원우기자



◇붓다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한 7개국 15명의 대학생들이 전등사에서 연등만들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복장유물 도난 · 훼손 안된다”

김대통령 방지대책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4월 27일 최근 드러난 대규모 국보급 문화재 도난 사건과 관련 "정부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절취법들에 의해 도난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불교계와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특히 전국 사찰의 불상 안에 보관돼 있는 복장유물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편집인 : 김광식 등록번호 : 다-3379
 인쇄인 : 김규식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문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청정 心 清 淨 나라청정 國 土 清 淨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 오신날 2천만 불자님과 함께 봉축하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불자 국회의원 : 김태호, 김진재, 하순봉, 정재문, 김기배, 김찬우, 김영일, 박헌기, 전용원, 최돈용, 김용갑, 이상배, 이해봉, 임진출, 정문화, 강신성일, 김용균, 김용학, 김학송, 도종이, 손희정, 엄호성, 윤두환, 이원형, 이인기, 최병국, 황승민

한나라당불교신도회장 함종한 외 불교신도회원 일동

한나라당 홈페이지 : www.hannara.or.kr / 한나라당 도움전화 : 전국 어디서나 ARS 700-2021 한통화에 1만원의 정성으로 세상이 편해집니다.